

광주·전남 공무원 사회 더 맑아졌다

청렴도 평가...광주시 2단계 상승·전남도 1단계 올라 '3등급' 시도민, 현안 사업 성과·코로나19 방역 노력에도 좋은 평가

민선 7기 들어 광주·전남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업무 실적도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하고, 타 지역보다 우수한 코로나19 방역 대처로 확진자·중증환자 비율 역시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특보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정부에 제시해 광주·전남도가 각각 3조원, 8조원 국비 시대를 열었다는 점도 최대의 성과로 인정받을 만 하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시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5등급에서 2단계나 전남도는 4등급에서 1단계 각각 향상됐다. 광주에서는 동구·서구·광산구, 전남에서는 강진·곡성·담양·보성·영광·영암·해남군 등 7곳이 2등급을 받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종합청렴도 분야에서 1년만에 2단계나 상승하면서 그동안 시정의 발목을 잡았던 '낮은 청렴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다.

광주시의 청렴도를 견인한 핵심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방역과 역대급 시정 성과 등이 꼽힌다. 실제 광주시는 K방역을 선도할 정도로 우수한 방역 시스템,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완공에 따른 '캐스퍼' 출시, 국가 AI데이터센터 착공,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전국 최초 최종중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운영, 폐폐저축은행 배구단 유치,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등 손으로 다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정 성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초기 국내 첫 병원 코호트 격리를 시작으로, 대구와의 병상 나눔 연대, 전국 최초 민간공동대책위원회 구성,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격리해제전 의무검사 등을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지금은 모두 우리나라 표준 방역지침이 됐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광주시의 다양한 시정 노력도 돋보인다. 시는 전담인력을

채용해 '청렴 해피콜'을 도입하고, 공직자 비위 예방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마련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청렴도 상승을 계기로 '더 청렴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을 청렴 '오피스' 재도약의 해로 정한 전남도는 외적으로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을 강화하고, 내적으로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도민이 체감하는 외부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 상위권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대외적으로 공사, 운영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장까지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제도를 확대·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특히 '도민고충 처리지원반'을 신규로 운영해 일상 속 불편사항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대민 행정서비스를 쇄신하고 도정 신뢰를 쌓았다.

미래 산업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도 성과다.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틀을 닦았고, 국가연구기관인 초강력레이저연구 시설 설치도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됐다. 민선 7기의 새로운 전남 미래비전인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 내년 정부 예산에서 올해보다 81건 7484억원이 증액된 2022년 2조4382억원을 반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문금주 행정부지사, 실·국장 등이 매주 시·군 현장에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면서 도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도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민선 7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도정을 이끈 것이 성과가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미크론 공포' 한산한 함평 읍내 거리 12일 함평군 함평읍 시가지가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이 한산하다. 이날 함평에서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 나왔다. 확진자 접촉자 등 15명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오미크론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함평, 어린이 등 3명 오미크론 확진

전남 지역 감염 첫 사례
신규 환자 연일 80명대 쏟아져
광주, 하루 70명 확진되기도

함평의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3명이 나왔다. 전남 첫 사례다. 행사가 많은 연말을 앞두고 연일 8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는 12일 "함평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3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된 이들은 30대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2명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확진자 번호는 전남 4837, 4929, 4930번이다. 이들은 목요일인 지난 8일(4837번)과 금요일인 지난 10일(4929, 4930번)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질병관리청 정밀 분석을 거쳐 12일 오미크론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이들 3명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미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어린이집 교사만 가려운 기침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녀 원생 2명은

무증상이다. 확진자 3명 모두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전북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아프가니스탄 국적 30대 외국인 유학생 관련 확진 사례로 조사됐다. 해당 유학생이 조카와 접촉하면서 조카가 다니는 전북 어린이집으로 전파됐고, 이후 서울 가족 모임을 통해 전남(함평)으로 지역 간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된 3명 외에도 접촉자 등 15명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전남에선 오미크론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 속도가 기존 델타변이를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오미크론이 델타변이를 대체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한

다. 국외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자 증상이 경미하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한국 방역당국은 "보다 많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전남에서만 연일 70-80명씩 쏟아지는 점도 부담이다.

전남에서는 수요일인 지난 8일 69명의 확진자가 나와 기존 일 최대 확진자(68명)를 갈아치운 데 이어 9일 69명, 10일 75명, 11일 80명으로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다. 12일 오후 1시 현재 11개 시·군에서 53명이 나와 전남 누적 확진자는 5127명으로 늘어났다.

광주에서는 금요일인 10일 25명, 11일 71명, 12일 오후 1시 현재 28명이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6819명이 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해군총장 목표출신 김정수 중장

김정수 현 해군참모총장(중장·해사 41기·사진)이 35대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김 총장 내정자를 정식 임명한다.

전남 목표출신인 김 내정자는 문태고등학교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김 내정자는 해군참모총장과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합참 시험평가부장, 제7기동전단장 등을 역임한 국방정책 및 전력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 내정자는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해군참모총장(중장) 승진에 이어 이번까지 3연속 임기제 진급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김 내정자가 해군총장에 취임하면 군 수뇌부 가운데 서육 국방부장관(육사 41기·광주)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전북 김제)에 이어 세 번째 호남 출신 인사가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오징어 게임'으로 본 광주·전남 사회상 ▶6면

전남 드래곤즈 'FA컵 우승' 기록을 쓰다 ▶18면

詩로 자유를 추구한 모더니스트 김수영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광주 군 공항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군 공항은 국가 중요 국방시설로서 이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마땅히 국가가 주도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양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